

September 2011

# Emerging Market Daily\*

남아공의 청년실업문제와 정부의 대책

September 5, 2011

# 남아공의 청년실업문제와 정부의 대책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sup>1)</sup>

## 남아공 실업문제와 정부정책

남아공의 가장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는 단연 실업문제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 실업문제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도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큰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남아공도 이러한 실업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올 초 제이콥 주마(Jacob Zuma)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남아공정부는 2011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단합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남아공 국민의 신년 소원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업을 마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로 남아공은 현재 100만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011년에는 교육기관들의 기능 강화, 서민 주택 공급, 전기·수도 공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정부의 2011년 경제운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실업문제와 수출증대문제 등을 위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효율성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문제는 남아공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향후 10년간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현재의 실업률 25%를 15%로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점 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이며, 더불어 스마트 정부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 부문과 잘 조직된 노동 시장과의 보다 나은 조정이다”라고 경제개발부 장관인 이브라힘 파텔(Ebrahim Patel)이 의회의 경제개발 포트폴리오 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경로를 위한 토대가 남아공이 국가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1)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인 서상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South Afric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음. 저서로는 ‘아프리카의 역사와 정치 경제’가 있음.

파텔 장관은 이 계획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조정과 화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 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신 경제성장의 길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경제, 농업, 광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업 등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아공에서의 개선된 저축문화를 공공이 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아공 정부의 노력들이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 경제성장률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의 성장을 해야 하지만 올해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은 3% 후반이다. 특히 남아공 화폐 란드의 강세는 수출과 광물채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물산업의 부진이 고스란히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도 섬유나 모직 등 경공업 제조업 기반의 중국제품의 잠식 그리고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일자리 창출을 순조롭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Khalema Petrus Motlanthe) 남아공 부통령이 남아공의 청년 실업자가 280만명에 이르며 그 같은 시한폭탄을 긴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국영 방송 SABC 인터넷판이 8월 28일 보도했다.

모틀란테 부통령은 27일 밤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남아공의 유대인 모임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통계를 보면 실업자이면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18~24세 청년이 280만 명에 달한다"며 "우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자연발생적인 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도 그런 도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흑인차별) 정권이 붕괴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부와 소유로부터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교육, 보건, 범죄와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개발 등 5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재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 남아공 청년실업문제와 정치·사회문제

남아공 실업문제, 특히 흑인 젊은층의 실업과 가난이 남아공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백인정권이 물러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또한 기존의 흑백간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흑인들간의 빈부격차만 늘어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흑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줄리어스 말레마(Julius Malema)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청년동맹 위원장은 광업과 은행의 국유화와 함께 백인 소유 토지의 무상몰수를 주장해 주로 가난한 청년 실업자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거리는 집권당 ANC 내부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위낙 민감한 사항이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의 젊은층 실업률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남아공 노동시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남아공 노동시장은 남부아프리카노동조합(Cosatu)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노조를 바탕으로 해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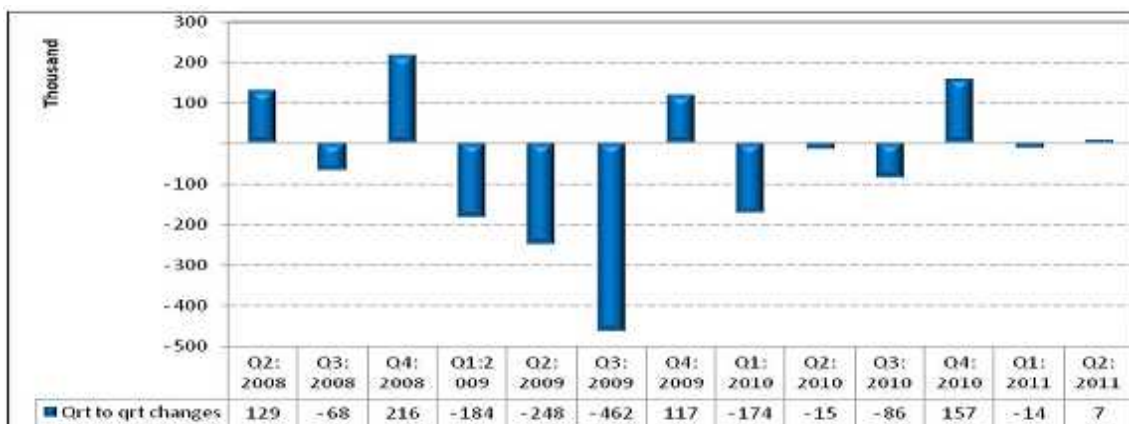
특히 남아공 란드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함께 이미 남아공 내 의류 제조공장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못 이겨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이후 의류공장 1,140곳은 7,7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소 70% 인상할 것을 주문 받았다. 또 다른 공장 36곳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향후 수십개 공장이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 수 천개가 사라지면서 남아공 16~30세의 실업률은 종전 25%에서 40%까지 치솟았다.

특히 산업단지인 쿠와줄루 나탈주에 위치한 뉴캐슬 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60%를 육박했다. 그럼에도 남아공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쿼리 퍼스트 사우스의 한 전문가는 “남아공 정부는 현재 고용돼있는 사람들을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한번에 두 가지 일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 남아공 실업 현황

2011년 1사분기와 2사분기 사이에 남아공에서 18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증가도 비정규직 및 일용직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업자 수도 174,000명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16,000명에 달해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여 2011년 1사분기 25%에서 0.7% 증가한 25.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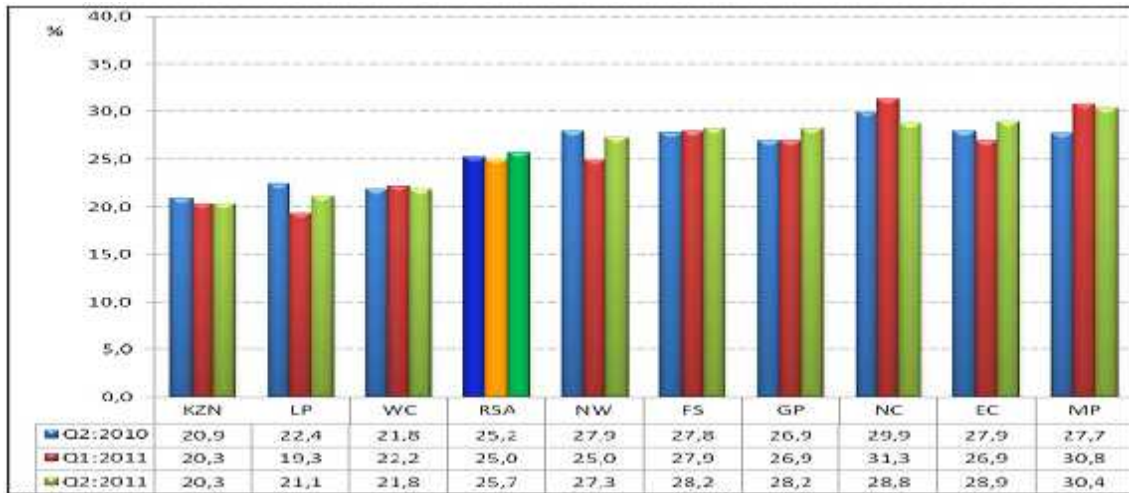
표 1. 남아공 일자리 증가 수(단위, 천명)



자료: Unemployment: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LFS), Statistics South Africa

지역별 실업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와 남아공의 전력상황 등과 관련하여 광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주로는 석탄 및 철광석 자원이 많은 음푸말랑가와 노던케이프 주와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이스텐 케이프와 하우텡 주에서 실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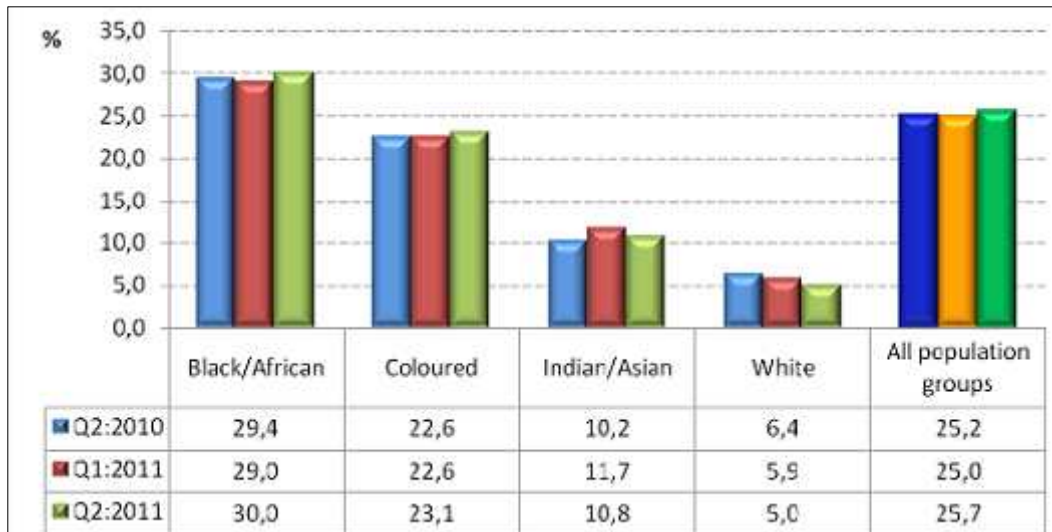


자료: Unemployment: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LFS), Statistics South Africa

또한 남아공 실업률의 특징 중 하나는 인종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특히 인종차별정권 시절 인종 피라미드형의 정치, 경제 권력지형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정권 시절 교육의 혜택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을 본 백인들의 경우 전문직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실업률이 낮으며, 반면 흑인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직업을 얻는데 있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백인들과 인도/아시아인들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인종별 실업률



자료: Unemployment: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LFS), Statistics South Africa

### < 참고자료 >

남아공 통계국(Statistics South Africa)

Allafrica.com 등 인터넷 자료